

'전북대 경제적 가치 연 6조3300억'

전북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 국립대 최초 분석 생산유발 1조7995억 · 졸업생 미래수입가치 4조5335억원 도내 부가가치 유발효과 7526억원, 자치도 GRDP의 1.34%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국립대학 최초로 대학이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 측정 모델을 제시해 화제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생산유발효과와 미래수입가치 등을 더한 총 경제적 가치가 6조3,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축구팀 순위 6위에 해당하는 바이에른 뮌헨 구단가치(한화 약 6조 8,875억원)와 맞먹는 가치다.

이번 분석은 전북대학교 IP센터가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지역산업연표를

활용, 지난해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의 직접지출액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북대(병원포함)의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북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가 1조3,128억원이었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526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1만6,655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전북대(병원포함)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은 생산유발효과가 1조7,99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502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9,429명이었다. 이같은 전국 생산유발효과 금액은 BTS의 빌보드차트 1위 경제효과(1조7,000억원)와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부가가치 유발효과에서도 7,526억 원으로 2021년도 기준 전북의 지역 내총생산(GRDP)의 1.34%에 해당하고, 같은 해 장수군 5,803억원, 진안군 6,584억원, 무주군 7,532억원, 순창군 7,761억원 등 4개 지역의 GRDP를 뛰어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 내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북대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넷플릭스 코리아의 매출액(2022년 7,732억원 / 2023년 8,23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년 5천 명 이상이 졸업하는 미래수입 가치 또한 이번 분석에서 측정됐다. 지난해 학사졸업자 4,070명, 석·박사학위 수여자 1,176명의 미래수입

가치를 분석한 결과 4조5,335억원이었으며, 전북대 졸업생들의 경제연수가 10년 이상 남아있는 졸업생들의 미래수입가치를 계산해보면 134조4,501억원의 미래수입 가치가 예상된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으로 더 큰 걸음을 걷고 있는 전북대학교가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이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했다"며 "전북대학교가 꿈꾸는 진정한 플래그십대학을 위해 훌륭한 인재 양성 기관으로, 연구 결과를 지역산업화의 기초로 환류하는 기관으로, 지역산업체의 기술적 고민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정치권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 반드시 전북대로"

"전북권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큰 기폭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정부의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에 나선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힘을 실어 줬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등은 8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의 필요성 및 전북대 선정을 촉구했다.

이날 박희승·신영대·이성윤·정동영·안호영·한병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조배숙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전북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병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송철규 전북대 연구부총장 등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반도체 소재 및 케미컬 산업 분야에서 OCI, 동우하이텍, 한솔케미칼, KCC 등 30여 개 기업이 있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도 10조 이상의 투자와 50여개 기업 유치가 확정됐다"며 "우수한 반도체 교육 역량을 갖춘 전북대가 반도체공동연구소까지 유치하게 된다면 전북권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등은 8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의 필요성 및 전북대 선정을 촉구했다.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당위성을 밝혔다.

또한 "반도체와 같은 국가 첨단산업의 부재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전문인력의 유출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 마

련이 절실하다"며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전북에 자리한다면 지역의 대학들과 지역 산업계가 협업·공유하는 선순환형 교육 생태계 구축과 함께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인재양성,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은 정부가 반도체 인프라 구축, 수도권 인력 집중 해소를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선정 대학은 2028년까지 건립비 164억원과 기자재비 280억원 등 총 444억원을 지원받는다. /장은성 기자

9~12일 '전북미래학교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우수사례 나눔 등 주 내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12일 4일간 전주 왕의지빌에서 '2024 전북미래학교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4학년도 전북미래학교 131개교 교(원)장, 교(원)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전북미래학교 우수 사례 나눔 △전북미래학교 컨설팅 결과 피드백 △기초·기본학력 신장 및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 △수업혁신 방안 모색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북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구성원별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수업혁신을 실현하고자 한다.

같은 기간 전북미래학교 수업공개도 이뤄진다. IP연구학교인 영만초가 10일과 11일 '우리 자신을 조각하는 방법'과,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등을 주제로 수업을 공개한다.

특히 도내에서 처음으로 IB 후보학교로 승인받은 용북중학교는 12일 국어 등 6개 과목의 수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수속초도 12일 진행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교 현장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갈 바이다"면서 "전북미래학교가 대한민국 미래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확산 방안 논의

전북대, 1 정책포럼 개최

시민 참여형 지역에너지전환 1차 정책포럼(과제책임자 유남희 전북대 교수)이 최근 전주시 에너지센터에서 열렸다.

8일 전북대에 따르면 기후 위기의 시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은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현황분석 및 확산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양문식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전북협의회장과 이은정 전주시 기후변화 대응과장, 유영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대표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해외사례와 적용방안'을, 최우순 전주시에너지센터장이 '전주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현황과 강화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시민참여형 지역 에너지 전환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민 참여형 지역에너지전환 1차 정책포럼(과제책임자 유남희 전북대 교수)이 최근 전주시 에너지센터에서 열렸다.

이어 최지은 전주시의원, 김재병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오성현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장, 김윤권 전북지속협의회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해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통해 합리적 지역 에너지 전환 방안을 찾아 가는 시간도 마련됐다.

유남희 책임교수(전북대 기록관리학

과)는 "전주시와 시민 조합원 간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전주시 에너지전환사업 모델이 지역사회와 전북대, 전북교육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과학교육 정책 수립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전주 왕의지빌에서 과학교육 정책 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초·중·고교 과학교육 담당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운

영된 이날 토론회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전북과학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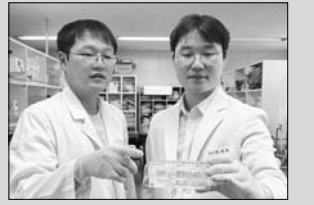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교육 선임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지능형 과학실 ON 활용'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특히 지난 6월 진행된 전북 과학교육 정책 인식조사와 정책 제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교육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분임별 토의도 이뤄졌다.

이에 과학교육 담당 교원들은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조성, 과학교구의 체계적 관리, 함께하는 과학문화 형성 사업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장은성 기자

이공분야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 선정

우석대 이성표 대학원생



이성표 대학원생(사진 왼쪽)과 한주희 지도교수. (사진=우석대학교 제공)

우석대학교 이성표(약학과 박사과정 1차수) 대학원생이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이공분야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창의적·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성표 대학원생은 '근감소성 비만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선천 면역 조절자 및 다중 세포 사멸 조절의 기전 연구'라는 주제로 연간 2500만 원씩 2년간 총 5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성표 대학원생은 "해당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대사·면역 분야의 차세대 연구자로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주희(약학과) 지도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선천 면역 조절자를 통한 근감소성 비만 치료의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8일 이리신광교회와 익산교육지원청에서 각각 학부모 350여명, 교직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학력 신장 맞춤형 교육 강화"

서거석 교육감, 익산서 학부모·교직원과 공감 토크

서거석 교육감이 8일 익산 지역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만났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리신광교회와 익산교육지원청에서 각각 학부모 350여명, 교직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공감토크에서 서 교육감은 △스마트기기 보급 등 미래교육 환경 구축 △IB 교육 확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방안 △직업계고 학생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직원과의 간담회에서는 IB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교원연수 방안,

유치원 및 특수학급의 전자철판 도입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서 교육감은 "최근 미래교육정책연구회 설문조사에서 학력 신장 정책에 대해 71%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 학력 신장을 원하는 교육 가족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이를 위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감토크는 서거석 교육감이 14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해 학력 신장과 늘봄학교 등 주요 교육정책과 지역 교육현안을 주제로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과 소통하는 자리다. /장은성 기자

24~26일 '인문학 나들이 주간'

전북자치도교육청, 1~2부로 나눠 진행

1부 인문학 강연·글쓰기... 2부 고전 산책

반덕진 우석대 교수 '트로이 전쟁 3부작' 강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4~26일 3일간 '2024 인문학 나들이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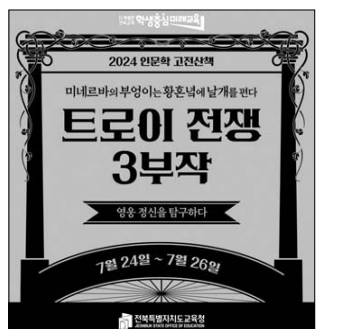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인문학 나들이 주간 1부는 도내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인문학 강연 및 글쓰기로 이뤄졌다.

강연은 24일 김정배 원광대학교 교수의 '주파수 검색중입니다'와, 26일 강원국 작가의 '강원국의 글쓰기'가 창조내대 시청각실에서 12시30분~14시30분까지 각각 진행된다.

인문학 글쓰기는 도내 현직 작가들과 함께 주제(음식, 시간, 이름)에 따른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18개 글쓰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사전 신청한 학생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2부 '인문학 고전산책'은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특히 반덕진 우석대 교수가 3일내내 오후 6~8시 분청 2층 강당에서 트로이전쟁 3부작 강연 시리즈 강사로 나서, 문명의 찬란한 역사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 희망자들은 네이버폼(<https://naver.me/GfCwkmh>)을 통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공부 매우 필요하다"면서 "인문학 나들이 주간을 통해 우리 학생들 한명 한명이 삶에 필요한 교양과 지혜를 갖추고, 삶의 주도성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